

고대 흔적 간직한 '여수 석보' 복원 추진

〈石堡〉

최종 발굴조사 내년 3월 마무리

청자·엽전 등 유물 다량 출토

2021년까지 주변정비·관광화

여수시가 국가 사적 제523호로 지정된 '여수 석보'(石堡=돌로 쌓은 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10월 여수시에 따르면 여전동 868번지 일원 2만1740㎡ 여수석보 유적지에 대해 10억원을 투입해 3차 발굴조사를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1~2002년 명지대와 전남대, 순천대와 공동으로 여수석보 1차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성벽과 문지 2개소, 건물지 3동, 해자(孩子=성 주위에 둘러 판 연못) 등을 확인하고, 청자·백자·분청사기 등 유물 590점을 발굴했다.

지난 2007년 2차 발굴조사에서는 서벽과 서문지, 수구, 배수로, 해자, 건물지 등 8동을 발굴하고 우물 1곳과 연못지 1곳 등을 확인했다. 또한 수키와·암키와, 엽전, 잔, 병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시는 마지막 발굴조사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마치고 오는 20일경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최종 발굴조사 이후 여수석보 종합 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해 2016년 7월부터



하늘에서 내려다 본 여수 석보.

2021년 6월까지 여수석보 복원과 주변정비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석보의 역사성을 정립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석보

평지에 축조된 둘레 703m, 높이 3~4m의 네모꼴 성곽시설이다. 통일신라 혹은 그 이전에 계획된 도시로서 고려시기가 가장 번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초기에 이르러 국도방어와 도시계획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도 고

통요지로서 조운장 또는 장시 등이 번성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특히 평지성과 해자가 잘 보존된 국내 유일의 유적지로 통일신라 시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1987년 1월 '석창성'이라는 명칭으로 전남도 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됐고, 지난 2012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23호로 승격된 바 있다.

전북 소식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에 자리한 민속마을 '송참봉 조선동네'.

정읍,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 선정

관광공사 주관 네티즌 투표

관광잠재력·성장가능성 커

정읍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올해 가장 잠재력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에 정읍시를 포함한 9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읍의 관광자원으로는 '구절초 축제'와 '옥정호', '송참봉 조선동네' 등 3개가 포함됐다.

'구절초 축제'는 지난 2012년에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고 '옥정호'도 2002년에 한국관광공사 주관 전국 관광 명소 100선에 포함됐었다.

또 '송참봉 조선동네' 역시 지난 2008년 정읍시 농·어촌 체험휴양사업 '관광

농원'으로 조성된 이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꾸준히 사랑받아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간의 관광지 온라인 마케팅 협력사업'의 신청을 받았고, 정읍을 비롯한 전국 21개 신청지자체를 대상으로 25일간의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역량 있는 관광자원을 선정해 공사와 시·군이 마케팅 협력을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일함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관광공사와 함께 1년간 '구절초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과 홍보도 펼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현대 삼호중공업, 선내 무선통신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와이파이 중계기로 사각 해소

현대 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건조중인 대형 반잠수식 시추선 내에 무선 음성 통신시스템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10일 현대 삼호중공업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된 설비는 갑판 위 조정실과 선체내 격실 사이에 유선이 깔려있어 통화할 수 있지만, 공사가 진행중인 설비는 유선망이 없는 데다 전파도 닿지 않아 그동안 마땅한 통신 방법이 없었다.

특히 전선이나 배관, 각종 기계장치들은 설치가 마무리되면 조정실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데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작업자가 직접 오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업무가 해양설비 한 척에만 케이블 포설, 각종 운항 및 시추장비 설치 등 수만 건에 이른다.

또한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에 따라 안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그동안 통신이 안 되는 격실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자가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 사고소식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직후 곧바로 상황을 전달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돼 회사의 안전시스템도 한 단계 앞서가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격실내 무선음성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간이 중계기를 곳곳에 설치해 전파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별도의 허가나 비용이 들지 않는 5GHz



대역의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해 설치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였다. 단말기는 가볍고 착용이 편리한 이어폰 타입으로 선정해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 <사진> 현대 삼호중공업은 이 시스템을 반잠수

식 시추선 건조 현장에 구축하고 시험한 결과 통화품질도 우수했으며, 통신 사각 지역도 100%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선음성 통신시스템을 설치한 시추선이 인도되면 철거 후 다른 선박이나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어 투자효율도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의장과 시운전, 안전 관련 부서 현장직원 100여 명에게 단말기를 배포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 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선박이나 해양설비를 건조하는데 통신 사각지역만 해소해도 안전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순창産 아열대 열매 곧 맛본다

순창군이 기후변화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아열대 소득작목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지역에서 현재 시험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목은 무화과를 비롯해 여주, 석류, 백향과 등 4종이다.

무화과(양액재배)는 순창읍에 2000㎡, 여주는 풍산면에 1000㎡, 석류는 금과면에 3000㎡, 백향과는 쌍치·구림면 3300㎡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다.

군이 아열대식물 재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최근 아열대 과일의 국내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WTO 협정에 따른 수입증가로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군은 순창지역에 맞는 새로운 아열대 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아열대형 수입구조를 만들면서 지역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비가림하우스 215동 설치비로 사업비 28억5000만원을 지원해 전라품목의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죽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탄타, 주스)

• 프리미엄 최상급 양돈돼지
• 풍부한 육질
• 부드러운 식감
• 올일종기스화 재배 허브 육성
• 최첨단 무균해 신선한 재료

죽석요리

알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 우리옷 맞춤형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형영 투레뷰트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